



말씀은 넘치는데 왜 삶에는 남지 않는가

■ '성경암송 1일 완성세미나' 개최하는 박종신 목사



말씀을 접할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지만, 정작 말씀을 기억하고 설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교와 강의, 콘텐츠는 넘쳐나지만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깊이 새겨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성경암송'이 다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는 4월 6일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성경암송 1일 완성세미나'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성경암송

오후 시간에는 암송된 말씀이 개인의 경건을 넘어 가정과 교회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계승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주최 측은 이번 세미나가 자녀들의 신앙계승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구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성경암송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단했던 이들, 자녀와 청소년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삶에 남는 말씀의 부재를 절감하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박사는 "지금 한국교회와 가정이 겪는 다음 세대 신앙계승의 위기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회복은 결국 말씀의 회복"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말씀으로 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 신학생, 교사, 셀리더, 부모, 학생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등록비는 3만 원, 현장등록비는 4만 원이다.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4월 6일 오전 10시~오후 3시 호신대 T2에서 다음 세대 신앙계승 해법 '구조와 방법' 제시

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반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외워지고 살아가게 하는 구조와 방법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번 세미나는 성경암송 전문 사역자인 박종신 박사가 인도한다. 박 박사는 성경암송학교(BRS) 교장으로 오랜 기간 말씀암송과 하브루타 교육을 현장에 적용해 왔으며, 성경암송의 실제적인 원리와 적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는 "성경암송은 단순히 외우는 훈련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기도와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통로"라며 "말씀이 내면에 남지 않으면 신앙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세미나는 시간대별로 분명한 흐름을 갖고 진행된다. 오전에는 성경암송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를 찾고, 암송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원리와 구조를 설명한다. 특히 단순한 강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말하고 나누는 참여형 훈련을 통해 참석자들이 암송의 원리를 실제로 체득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개요
 행사명: 성경암송 1일 완성세미나
 강사: 박종신 박사
 일시: 2026년 4월 6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호남신학대학교 T2실(기숙사 8층)
 대상: 목회자, 신학생, 교사, 셀리더, 부모, 학생 등
 등록비: 사전등록 3만원 / 현장등록 4만원
 등록계좌: 농협 351-0976-8111-33 (예금주: 성경암송학교 BRS)
 등록인내: 010-3018-0693

추모사

고(故) 김난영 어머니를 떠나 보내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 보내며, 큰아들로서 그리고 네 남매를 대표하여 감사와 그리움의 마음을 담아 추도사를 올립니다. 평생 배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로 가족을 살리신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태중에서부터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과 기도로 태교를 받았습니다. 다섯 살 무렵엔 어머니 손을 잡고 월야중학교고등학교로 가, 교탁 아래 쪼그리고 앉아 고통학생들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배움의 자리에 저를 먼저 앉히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지혜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생 배움과 가르침으로 빛났습니다. 짧은 시절 신학문을 익히시고 평생 후학 양성에 힘쓰셨습니다. 강단에서와 일상에서 "배움은 사람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사람을 세우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 네 남매를 잉태하시고 낳으셔서, 산고를 찬양으로, 눈물을 양식으로 바꾸어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가정에는 이사와 고단함이 잦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의 부침으로 소탈구지에 이삿짐을 싣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고, 여섯 식구가 한 칸 방에서 칼잠을 자던 기억도 선명합니다. 오랜 세월 '문간방'에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모님의 도움으로 지금의 2층 집에 어머니만의 방을 얻으셨을 때, 어머니는 그곳을 마음속 '궁궐'처럼 여기며 사셨습니다. 계단이 가팔라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옮기시자 여러 번 권했지만, 어머니는 "교회 가까이 살며 새벽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시며 여생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도함이 마지막까지 어머니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열네 살에 시구체신염으로 병원에서 "기량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셨고, 결국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 밤새 철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때의 증인들이 계십니다. 치유 집회를 찾아다니며, 엘리사를 섬긴 수넬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제게도 생명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눈물은 저를 살렸고, 우리 가정을 불태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이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시절에도 어머니는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굳은살이 배도록 수고하시며 "배움란은 끊지 말아라" 하시던 그 한마디가 우리를 책상 앞과 기도의 자리로 다시 세웠습니다. 네 남매의 화업과 사명은 모두 어머니의 희생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은 신앙과 근면, 성실과 인내를 본받아, 어머니의 신앙과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의 계보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네 남매가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이루어 어느새 여덟 식구가 되었고, 네 가정에 손자손녀 아홉을 허락받아 모두 열일곱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의 결실이며, 어머니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셨음을 증명합니다.

그 사명의 열매는 사역의 자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저와 안혜 최금옥은 전인치유와 기독교화선교, 기독교인 사역의 현장에서 작은 등불이 되고자 했습니다. 둘째 이지원 사모는 남편 김광삼 목사와 함께 개척교회 사역을 감당해 왔고, 셋째 이태행 목사는 안혜 손덕신 사모와

더불어 장애우 사역의 결자리가 되었습니다. 넷째 이남행 목사는 안혜 오혜림 사모와 함께 위구르 민족과 국내 이주민을 섬기는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손자손녀들 또한 각각의 은사를 따라 자기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 기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공부할 의학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몸소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신 어머니께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가족희생을 통해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기로 하고, 장례식 둘째 날 어머니를 전남대학교로 떠나보냈습니다. 입관실에서 마지막으로 빈 어머니의 얼굴은 놀라도록 평온하였고, 머리카락은 정갈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열일곱 명의 가족이 작별 인사를 울리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安息하세요. 사랑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요 12:24)을 어머니는 삶으로 보여 주셨고, 우리에게도 평생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네 남매에게 남기신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어머니의 큰 사랑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으나, 믿어들이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동생들과 조카들을 위해 기도하며, 길들 앞에서 제가 먼저 낮아지고, 기쁨 앞에서 함께 감사하며, 어려움 앞에서는 서로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깁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믿음과 사랑, 배움과 섬김의 씨앗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새벽을 더 깨우고, 교회를 더 섬기며, 이웃의 상처에 더 가까이 서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병도, 눈물도, 빛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어머니의 미소는 우리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생 어머니와 저희 네 남매를 위해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병환 중에는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살펴 주신 모교회 광주제일성결교회 강민호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투병과정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 사랑으로 섬겨주신 사랑병원(원장장사감)과 전남제일요양병원(대표원장 지승규)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를 풍격있게 치루도록 협력해 주신 VIP장례타운(회장 오병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고 소식을 들으시고 장례식장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오신 조문객들, 헌관상 마음을 담아 부의를 보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큰 빛을 쬐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믿음과 사랑의 길을 계속 걸으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넉넉히 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의 경조사에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 주시면, 기도와 섬김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뵈 그 날을 소망합니다.

2026년 2월 7일
큰아들 이박형 드림



예수 부활하셨네

교회창립 : 1979. 10. 21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

위원장 리종빈

■ 안주영목회부를 섬기는 본부

■ 목회시간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7:00	대예배실	영유아부	오전 11:00	관사실
	2부	오전 9:00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00	관사실
	3부	오전 11:00	대예배실	유아부	오전 9:00	관사실
수요기도회	1부	10:30	대예배실	교회부	오전 11:00	관사실
	2부	7:30	관사실	청소년부	오전 11:00	관사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소예배실				
플러싱기도회	오후 7:30	소예배실				

■ 안주영목회부를 섬기는 본부

위원장 리종빈

이경민 황대성 김윤정 신태호 권오탁 문병주 이광열 손광혁 박성자 이은혜 김정림 백상화 선병임 최계인 김경호 손진용 양승일 김용운 고광호 이준원 김용이 정계정 최순영 신병민 임석규 이학림 손양섭 박성모 지병철 강성진 박길남 김인환 강동근 정희락 박도훈 신용식 윤근관 김재철 손광휘 오용중 조규태 정덕만 이경범 최동호 양승중 송유오 장 신 현영환 장일규 박용식 유영복 문경수 박현주 신세희 박상현 유영덕 정용진 송용성 안호원 이안우 정희수 정민길 김태성 이종호 백중수 고송희

대안예수교
 창 르 회
 광주번영교회

☎ 61610 광주광역시 남구 근분로170번길 8(월산동)
 ● 교 회 : 062 367-1004 ● 팩 스 : 062 361-1004
 ● 홈페이지 : www.kbcbel.kr ● e-mail : kbcbel117@hanmail.net

예수 부활하셨네

표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본부

- 위임목사 : 조택현
- 부 목 사 : 이장현 정진원 김동호 박보민
- 교육목사 : 김주영 정은희
- 협동목사 : 이순은
- 교육전도사 : 김노미 김은정
- 시무장로 : 조성현 박정중 전종필 정영률 오정봉 이흥성 김영중 최 찬 백선필 오경남 김태조 서계상 신남래 홍광규 최길성 김대원 박수현 정재형
- 원로장로 : 채순옥 유성준 조덕봉 유성만 강영식 서정숙 홍인표 김경호 오진균 고성근 김준식
- 은퇴장로 : 오기선 정만채 유일광 이수길 박운석 김병수 이춘봉 양동렬 이계준 고재일 정형규 정수옥 김지현 한경윤
- 협동장로 : 정 광 김경영
- 은퇴협동장로 : 박현우
- 선 교 사 : 강한별 예상은

예배시간

- 주일오전예배 : 1부 주일 오전 7:00
- 2부 주일 오전 9:00
- 3부 주일 오전 11:00
- 주일오후찬양 : 주일 오후 2:00
- 수요일기도회 : 수요일 저녁 7:00
- 새벽기도회 : 새벽 5:00

61657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12 홈페이지: www.gjsn.net
 TEL : (062) 652-1004 FAX : (062) 671-5313